

행복도시 이야기

균형·상생발전, 미래 스마트도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친환경 문화도시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신년사, 4가지 중점 과제 추진

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원재입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이 되는 해로 국토연구원의 이전을 마지막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성공적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의 추가 이전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의 설립방안 도입 등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대학과 기업의 유치도 적극 추진하여 아일랜드 트리니티 대학 등 2개 해외대학 유치뿐만 아니라, 세종테크밸리에 첨단 IT기업을 중심으로 45개 기업을 유치하여,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도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박물관 등 국립박물관단지 사업과 아트센터·국립수목원 등 문화여가 관련 사업도 본격 추진하였으며, 주택·도로·공원 등의 도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도 지속 건설하는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말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구가 18만 6천 명에 이르는 등 도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조사결과 주민만족도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 무술년에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 놓은 기반 위에서 주변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 ▲행정기능 강화 등 '균형·상생 발전 선도'
 -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미래 스마트도시 건설'
 - ▲도시기반의 성숙화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
 - ▲더불어 어울리는 '친환경 문화도시 구현'
-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립행정대학원 건립과 국제기구 유치 등도 이루어 내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다가 올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도시모델의 구축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추진하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도시의 모델로 육성하고 ICT 등 다양한 첨단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창업 기반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수기업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공동캠퍼스 조성 등 국내·외 우수대학의 유치를 통해 미래인재의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도시건축물의 건설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등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효과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도시들과의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문화·관광 등 분야별 연계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개발과 인근 지자체들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더불어 발전하는 도시모델로 발전시키고, 국립박물관단지·중앙공원 조성 등 대규모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여가·문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충직하고 사랑받는 반려동물 '개'의 존재와 같이 국민들에게 항상 신뢰와 지지를 받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8.1.2.(화)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무술년 신년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우수·모범공무원 및 장·차관 표창 등 2017년 유공자 8명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다.

행복도시 첨단 비알티(BRT) 도입!

행복청-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첨단 비알티(BRT) 도입 추진 협약 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첨단 비알티(BRT: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비알티(BRT)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및 자원부담, 단계별 도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 기관별 역할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첨단 비알티(BRT)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 BRT교차로, 정류소 등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구체적으로는 행복청이 비알티(BRT) 도입계획을 총괄하고,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알티(BRT) 전용차량 구입비(12대)를 부담하며,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세종시가 차량을 발주·구매하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친환경·대용량 비알티(BRT) 전용차량 4대를 발주하여 2019년 말부터 비알티(BRT) 구간에서 운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첨단 비알티(BRT) 정류장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소(첫마을, 도람마을, 정부청사북측)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실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19년까지 1~4생활권 26개소, 2022년까지 5~6생활권 14개소를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첨단 비알티(BRT) 정류장 설치공사를 완료하면, 세종시가 신속하게 이관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 기관이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도시의 간선 대중교통체계인 비알티(BRT)가 첨단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행복도시를 함께 가꾸어 나가는 세 기관이 서로 합의점을 찾은 만큼 더욱 고급화된 첨단 비알티(BRT) 체계를 구축하여 행복도시가 최고의 대중교통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주민체육시설 확대

산울리(6-3생활권)에 58타석 규모 실외골프연습장 준공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 일원에 조성 중인 행복도시 최초의 실외골프연습장 ‘세종필드골프클럽 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2월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입주민의 생활체육 여건 증진 및 편의시설 조기 제공을 위해 2009년 12월 16일 건설공제조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추진한 세종필드골프클럽 도시계획시설사업(복합체육시설)의 2단계 사업이다.

1단계 사업으로 조성하여 운영 중인 18홀 대중 골프장 ‘세종필드골프클럽’에 이은 2단계 사업(2015년 5월 착수)으로,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비거리 200m, 총 58타석으로 계획된 실외골프연습장과 퍼팅그린, bunker 및 어프로치 연습장으로 구성된 쏫게임 연습장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시설인 실외골프연습장은 조기 이용에 대한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지난 10월 10일 우선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쏫게임 연습장 등 부대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세종필드골프클럽 실외골프연습장’은 기존의 다른 골프연습장과는 달리 설계공모 및 총괄자문을 통해 건축물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하였고,

쏫게임 연습장과 실외스크린 타석 등의 최신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골프연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근 골프장 등과의 연계 운영으로 골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은 행복도시의 특성에 맞춰 유소년 전문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의 시설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의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곡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하반기 공사 발주

행복도시 최초 ‘한글자음’을 소재로 한 복합커뮤니티 센터

7월말 설계 완료, 하반기 공사 발주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 반곡동(4-1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반곡동 복합센터)이 설계에 한창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7월 착수한 반곡동 복합센터 설계를 올해 7월말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계획이다.

반곡동 복합센터는 세종대왕의 업적이자 세종의 핵심 가치인 훈민정음의 ‘한글 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최초로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한류 건축물이다. 규모는 총사업비 442억 원으로 부지면적 7917㎡(연면적 1만2945㎡)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된다.

행복청은 혁신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5대 통합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행복도시 준공 시설물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5대 원칙은 ▲편리한 접근성 ▲다양한 공간 경험 ▲주민 참여형 공간 ▲내·외부 공간의 연계 ▲통합적 동선체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변 공원(외부)에서 건축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다목적 체육관)*에 별도 출입구를 마련

* 반영 종목: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GX룸, 암벽장, 스피닝, 요가 등

▲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알선을 위한 창업 지원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등 내부 공간 반영

▲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 출입구(문턱) 조성, 내부계단에 미끄럼방지 시설 반영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지열·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다인용(17인용) 승강기, 고단열 고기밀 창호 등 반영

김준연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반곡동 주민복합공동시설은 행복도시 최초로 ‘한글자음’을 건축물 형태에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주변에 학교·근린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었다”면서 “주민들께서 이웃들과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시도록 주민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행복청은 총 22개소의 주민복합공동시설을 행복도시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8개소 운영, 3개소 공사, 3개소는 설계 중이며, 나머지 8개소는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반곡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감도

행복도시~공주 1구간 연결도로 준공

행복도시 광역도로망 총 18개 노선·118km 중 7개노선·67km 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9월 개통한 ‘행복도시~공주 1구간 도로확장공사’를 12월 27일(수) 준공했다.

행복청은 사업비 1136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1호선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공주시 송선동 송선교차로 구간(6.3km)을 4차로에서 6차로(폭 31~35m)로 확장하였다. 또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 투광기 2개소, 컬러 차량유도선 3개소, 조명식 교통안전표지판 20개소, 교통표지판 20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66개소, 가로등 569주, 신호등 32주 등을 개통 전에 설치하였고, 과속단속 카메라 3대는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준공으로 통행시간이 3분(9분→6분)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향후 30년간 약 1100억 원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2021년까지 2구간(3.1km) 및 3구간(1.0km)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행복도시~공주 간 통행시간이 절반 이상(30분→12분) 단축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연결!

BRT 정류장, 호수공원 등에 공공와이파이 개통하고 도시전역 확대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에는 그동안 교통안전 등 필수 서비스 위주로 제공해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발굴·구축 중에 있으며, 그 중 가장 먼저 공공와이파이를 개통하게 됐다. 이제 행복도시 시민들은 버스(BRT) 정류장과 호수공원·방축천·수변공원 등 산책길에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중심 서비스’와 ‘정보(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지향하며, 공공와이파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먼저, 시민들이 통신료를 늘리지 않고도 행복도시 내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가계의 통신료 부담을 공공이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시민 중심적이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쉽고 편리해져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할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행복도시 시민체감형 서비스 구축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개정

안전관리에치금 대상 확대 및 공개공지 활용방안 등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축고시」 개정안에 대해 2017년 11월 21일(화)부터 12월 10일(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12월 20일(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금)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반영 사항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공개공지(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우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천㎡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하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개공지 활용 신고서, 신고 증명서, 신고대장 서식을 신설하였다. 이에 건축주가 공개공지 위치, 활용목적, 활용기간 등을 적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복청에서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공지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울타리 설치 등으로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개공지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 내 ‘전체메뉴>알림소식>참고자료>훈령/예규/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BRT 정류장 설치, 1월말 완료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신교통형 간선급행 버스 체계(BRT) 정류장 설치를 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신교통형 BRT 정류장은 반개방형 큐브형태의 정류장으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조명·와이파이(Wi-Fi) 등을 제공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 Life



글 · 문지은
행복도시 주부모니터단

행복도시 시민의자격!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제 개헌이 되면 헌법상 지위를 갖는 행정수도가 될 것 같다. 그래도 행복도시에는 세종시를 부르는 가장 친근하고 대표적인 별칭이 될 것이다. 2017년 시민 만족도가 8개월 동안 1위이기가 어디 쉬운가?

도시로서 세계 최고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마치 건축물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멋진 건물들이 즐비하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공동체를 이루며, 배우고 싶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도시. 최고의 학교시설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며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 세계 안전도시 인증과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여성친화도시이자, 유니세프에서 부여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도시출범 5년 만에 받은 도시. 그래서인지 5년 만에 인구 18만명이 이 도시에서 살겠다고 들어오고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는 멋진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 외에도 이 도시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동적인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첫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시 창작 강의를 듣고 전국 최초로 마을 시집 ‘첫마을: 금강에서 시를 짓다’라는 책을 만들었다. 행복청 주부모니터단에서는 사라질 뻔 했던 첫마을 약수터를 다시 발굴하고 봉사단을 조직하여 스스로 깨끗하게 관리하여 자전거로 금강을 일주하거나 마을 주민들에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멋진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서로 모여서 아이들에게 놀이를 가르쳐주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 좋은 교육을 하겠다고 스스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세종시라는 주소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 매체인 페이스북에 나오지 않는다고, 시민들 스스로가 서울 페이스북 한국지사에까지 항의방문을 하여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찾아온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개헌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이런 세종시의 모습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게는 혹시 조금은 낯설지 모르겠다. 그냥 겉모습은 아파트만 즐비한 다른 신도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을 만나 인사하는 것도 낯설고 페이스북 번개에 모여 신년 해맞이를 하면서 떡국 먹으러 가자는 제의를 받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은 세종시의 참 모습을 즐기고 싶은 시민이라면 유념해야 할 세종시민의 자격에 대하여 몇가지 말해보려 한다.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좋은 행사와 강의, 연주회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가비를 받지 않는다. 수시로 음악회나 무용발표회가 열리고 봄에는 복사꽃 축제를, 가을엔 세종 축제를 하고, 한 반년밖에 배우지 않은 악기나, 한국무용, 댄스스포츠를 프로그램 발표회라는 멋진 무대에서 선보이며 무대에서는 재미를 가져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집 밖으로 나와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예산 8조 5천억이 투입되어 공원, 학교 등이 건설되고 있는 도시이다.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저렴한 전세나 월세, 수도권보다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 외에는 더 지불하지 않는다. 여기서 세종시 조성부터 도시 계획까지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폭주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주셨던 시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의 인구를 맡고 있으며, 수시로 정부청사에 오는 시위대의 질서까지 유지해야 하면서도 별다른 큰 사고 한번 나지 않게 이 도시의 치안을 지켜준 경찰관님들에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봉사자, 마을 활동가들의 노고 없이는 이 도시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이분들에 대한 감사도 뻔 수 없다.

셋째, 공동도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굳이 세종시민이 아니라 선진도시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교통질서를 잘 지키며,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도덕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고 이기심을 버려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이러한 공동체문화를 즐기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혼자 노는 것 보다는 함께 노는 것이 훨씬 즐겁지 않은가? 오죽하면 컴퓨터게임조차도 함께 하는 멀티유저 방식이 선호 되고 있을까? 그러니 개인적인 패쇄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나 보다는 우리를 생각해보자. 내가 속해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남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놀부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말이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라면 세종시의 보물들을 하나하나 캐내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며, 주변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 친구라도 모두 불러서 살고 싶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함께 놀아가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이 멋진 행복도시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면 살아가고 싶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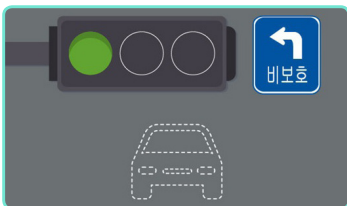
비보호좌회전 올바른 통행방법

비보호좌회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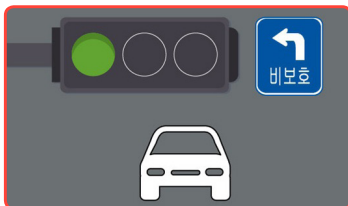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사용하지 않고 직진신호 동안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하도록 하는 신호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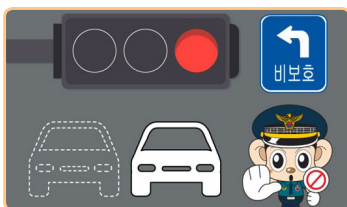
통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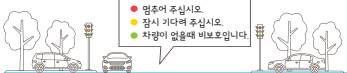
비보호는 녹색등이고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색등이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합니다.



적색불이면 맞은편 차량에 관계없이 멈춰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법칙금6만원, 벌점15점)
비보호좌회전 하기 전 직진차량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도 잊지 마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교통연구원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장애아동이나 비장애아동이나
똑같이 절실합니다.
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데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교육부 | 시도교육청

Passion.Connected.
하나된 열정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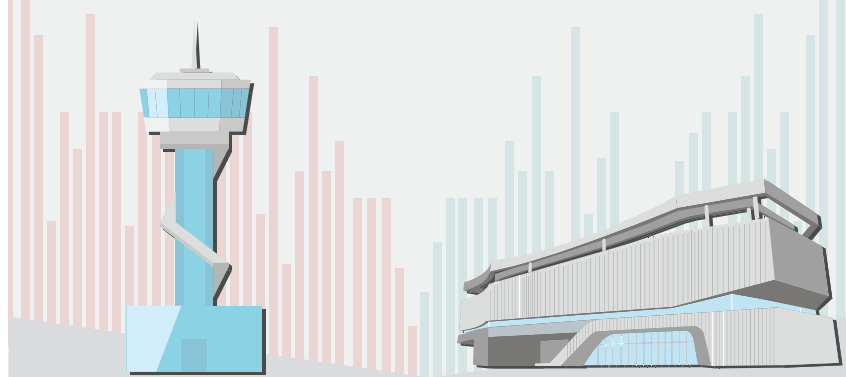
개회도시 | 평창, 정선, 강릉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이디에 계시겠습니까?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2.9~2.25

Venues | PyeongChang, Jeongseon, Gangneung
Get your tickets and share the passion
www.PyeongChang2018.com

'밀마루 전망대' 및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이용안내

매일 09:00~18:00, 연중무휴
(설날, 추석 당일은 14:00부터 운영)



밀마루 전망대

위치_ 세종시 도움3로 58(세종시 어진동 산3)
문의_ 044-862-8845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

위치_ 세종시 어울로 247(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51-6)
문의_ 044-867-7911~2

1월 문화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기간)	장소	문의
세종 아리스 오케스트라 『신년나눔음악회』	'18. 1. 18(목) 19: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행복청 044-200-1474

※ 공연(행사)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